

# “바른길 제시하자”

## 불교

적일까. 아직은 단언이 이르다. 그러나 기 준비를 위해 정보화사회 어디까지 건되는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적해본다. (편집자 주)

## 장해야

받고 있다. '유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기술자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목적지'를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삶의 감동과 정서를 희구하면서 텔레비전, 컴퓨터, MRI 등을 통하여 스릴, 성적 충동, 파괴, 잔인성, 살인구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물론 모든 매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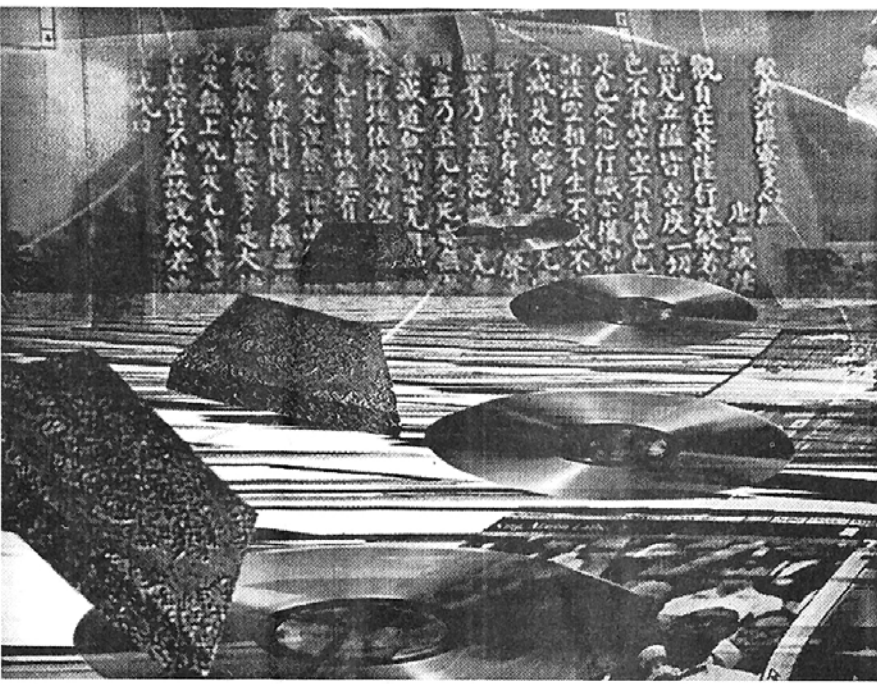
인간의 생의 감동과 인격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귀 인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건전한 문화, 특 고 신심을 갖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스버트는 초월적인 명상, 요가, 불교의 선 등이 모두 에 속한다고 말하고 그러한 운동들이 텔레비전이 같이하여 일어났다고 하여 요가와 컴퓨터가 기묘하 있었다. 사실 현대의 정보화 물질이 좋은 삶은 사회 이룩하고 있고 그 후세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의 기술 정보 시대의 장단을 예의 통찰하여 정보화 불교의 가치관을 21세기의 새로운 사고(思考)로 제시 해야 한다. 불교의 8만년

### 당대 운영 실 극복

받고 있다고 본다. 중도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크게 관하고 8경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에 쏟아져 나와 마치 허공처럼 피었다 지는 무생기소멸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수용하는 카로 '중도' 아니겠는가.

는 인류의 행복추구로 인해 더 진화·진보된 사회 라는 우리는 보다더 권하고 보다더 인간중심적인 세 가지 않고 부정적 또는 비판적 예측을 해안 하는 들없는 행복추구속에 탐욕과 아만이 도사리고 있기 은 행복추구는 오히려 불행의 초래한다. 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 것이 없으면 그것이 멸한다" 2천6백여년전 부처님게 화를 일면 중생계의 고갈병인 탐욕을 고칠 수 있다. 의 조건은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정보일론 등 보살을 배울하 가르침들은(8경도, 12연기론) 정보화사회에서 우려되 성 상실, 소외 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답이

야를 위해 중도사상을 이시대의 정보로 가공하여 장되도록 한다. 속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불교는 어디쯤에서 정보화 가. TV, 방송, 신문, 사이버법당 등 연관된 매체를 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정보일론 등 보살을 배울하 는 정보화사회가 불각하고 있는 정신문화를 일깨워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 명예교수)



당대(唐代)의 여걸 축천무후는 불교 특히 화엄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개경계(開城紀)>는 수세기동안 불교인들이 경건하게 암송하던 비었다. 그런 그녀도 실차난타가 번역한 신역화엄(80화엄)의 바다와 같은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법장(法藏)을 불러 강설을 들었다. 금사자(金獅子)에 비유한 설법에도 석연치 않아 하는 그녀를 위해 법장은 상하 사방팔방에 거울을 두고 한 가운데 불상을 놓았다. 불상이 불상을, 거울이 거울을 비치는 그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상호응답의 현란함에서 그녀는 법계(法界)의 부사의 성(不思議性)을 가늠할 수 있었다.

만일 시대를 지금으로 옮겨 오면 어떻게. 과연 법장은 어떤 도구와 비유를 써서 축천무후를 위해 화엄의 이치를 설했을까. 아마도 그는 컴퓨터의 스위치를 점장게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보시다시피 컴퓨터에는 문자도 없고, 그림도 없고 소리도 들리며, 활동사진도 듣는다. 그렇게 보이는 세계가 바로 사법계(事法界)에 해당 합니다. 사법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법계(理法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법계는 가시 적으로 현상되지는 않지만, 사법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법계 없는 이법계 또한 불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둘은 서로가 서로 에게 의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이법계(理法界)와 데이터인 사 법계(事法界)가 동일한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문서편집기로 글을 쓸 때 마' 사사무애법계(事無礙法界)는 어떤 것일까요. '법장은 여기서 큰 숨을 몰아쉬고 잠시 마른 침을 삼킨다. '제가 처음 문서편집기로 글을 쓸 때 가 떠오릅니다. 쓴 글자를 다시 지우는 것도 신기 했지만, 혹은 같은 대목을 둘째로 다른 자리에 복사할 때의 감각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

### 화엄세계와 인터넷

## 인터넷 '중중무진' 화엄소식 흥내

무진(重重無盡) 상즉상입(相即相入)의 일시동기(一時同起)와 호응(互應), 그 기적 앞에서 저는 관 세음보살께서 그 천수천안의 발원력으로 삼계(三界)의 모든 중생의 고통과 바램에 따라 일시(一時)에 '나부시는' 응신(應身)의 신통력이 관한 과 장이나 무책임한 위무가 아님을 짐작합니다. 컴퓨터와 정보화에서 불교를 떠올리는 것은 자 연스럽다. 그동안 고전철리학의 3차원 시공에 묶여 있던 인간의 사고수평이 아원자 세계와 멀티미 디어와 인터넷에서 격렬하게 깨어나고 있고 이 것이 불교적 교설과 같은 '신비주의적 의의'를 띠 고 있는 탓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과장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장이 보여준 것은 그야말로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그가 컴퓨터의 스

오. 글자를 일일이 다시 치지 않고 동일한 대목을 키 하나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그 기적을 말입니 다. 기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서를 편집 하는 그 자리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불러내서 편 집할 수 있습니다. 도스환경에서 윈도우환경으로 바뀌면서는 소리화일까지, 나아가 움직이는 동화 상까지 끌어들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공 간에 전혀 다른 성격의 사(事)들이 공존할 수 있고 중중적으로 결합 수 있는 것이 사(事) 사이의 응 통(融通)과 무애(無礙)를 증거하는 실례가 아니겠 습니까. 아직 석연치 않으시다고요. 저, 이번에는 이 자료파일을 통신망이나 인터넷에 띄워봅시다. 통신망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은 내가 올린 자료 하나를 <동시에(同時)> (수많은 사람이) 무제한으 로(無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정확하게 똑같이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카피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부사의(不思議) 중에 부사의(不思議)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세 계에서 사람은 엄격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과율의 제약 속에 있습니 다. 그런데 하나의 물(物)이 일체(一切)에 일 체현(一切現)이라... 일중다 다중일(一中多, 多 中一)의 화엄의 소식을 참으로 리얼하게 시뮬레이션해주고 있지 않습니 까. 내 컴퓨터 안에 세계 의 모든 컴퓨터가 들어 있고, 세계의 모든 컴퓨 터 안에 내 컴퓨터가 들 어있습니다. 일미진중함 시방, 일미진중역여시 (一微塵中舍十方, 一 切塵中亦如是)! 중중

### 인터넷정보 삼독이 세운 '허망의 탑' "컴퓨터 속에 부처님 걸어 나와야"

은 이제 통제불능으로 진입하고 있다. 스위치 하나, 혹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컴퓨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해커가 시스템 에 접근하기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은행시스템이 한번 뚫리자 전 금융망이 셧다운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그만큼 불련은 참을 수 있다고 해도, 만일 핵미사일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에러가 생긴다면? 인류는 이 푸른 대리석 구슬 위에서 삶을 모두 함께 마감하게 될 것이 다. 정보화사회는 불교적 진리관에서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노함의 삼독(三毒)이 세워올린 거대한 허망이라던 지나질 것인가.

어린 부처들이 벌써부터 현란한 허깨비정보들의 변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스스로의 불성을 자각하고 타인들과의 의미있는 교류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나이에 기계를 파트너로 가공할 환형 의 중독에 집단감염되어 '의초부목(依樹附木)의 정령(精靈)'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수록 부처의 불국 토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정보는 권력이며, 감시이 며, 또한 단련화의 자기분열을 예고하고 있기 때 문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말법(末法)의 쇠세(衰世)의 징후를 뚜렷이 할 것이며, 그렇수록 부처의 법 비취와 큰 응성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세속사의 변질이 어찌 부처의 큰 가르침을 '더하 거나 덜 것인가(不增不减)'.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낙관할 것도 비관할 것도 아니다. 인터 넷은 <쓰레기장>이지만 또한 <보물창고>이기도 한 것을, 정보의 밀망 대해를 표류하는 눈먼 중생들에 게 문득, 부처님의 모습과 움직임이 원음과 더불어 컴퓨터 속에서 걸어나온다면 그 또한 장관이 아니겠는가. 부다피아의 대 사업이 대한회의 보리심을 자극하는 크디큰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지혜를 모아 야 할 것이다.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형조

## 세계 불교계의 정보화 동향 3백여 불교사이트 '야후' 등록

### 교리교육·환경·논문등 내용 다양

최근 인터넷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에 유 난히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이곳에서 일상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종교관련 웹사이트는 총 8천3백13개. 물론 이 수치는 인터넷 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종교관련 웹 사이트의 정확한 총 개수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후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20 만여 개로 추정할 때 종교관련 웹사 이트의 비율은 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에서도 일상과 비교해 조금도 뒤 지지 않는 종교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현재 야후에는 불교와 관련해 약 3백 여개 웹사이트가 등록돼 있다. 이 수치는 야후에 등록된 종교관련 웹사이트 중에서 2%를 겨우 웃도는 정도로 기록 교와 관련해 개설된 웹사이트가 5천여 개로 6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왜소 할 따름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개설된 불교 사이트 개수만을 놓고 생각하면 '왕성한 활동'이라는 진단은 아직까지 조급한 감이 없지 않다. 반면 3백여 개의 불교 사이트가 인터 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

가를 내릴 수 있다. 이들 정보에는 교리 교육·학술자료·불교출판·사회운동· 불교문화·일반 자료 등 다양하게 분포 돼 있다. 불교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호주국립대의 콤브웹(Coombsweb, http://combs. anu.edu/)을 방문해야 한다. 여기에 개 설된 '불학가상도서관'(Buddhist Studies WWW Virtual Library)은 불교관련 인덱 스자료를 얻기 위해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호주국립대의 통계에 의하면 '불학가상도서관'은 매주 4백43 민여차례 정도 방문을 받는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정기구독 할 수 있는 전 자잡지는 총 30여개에 이른다. 이 중에는 <불교윤리> <사이버상가> 등의 학술 전 문잡지와 티벳독립을 옹호하는 <진리의 소리>, 대만불교 포교에 앞장선 <법문> 그리고 불교문화·예술에 대한 심도있 는 글을 실고 있는 <삼발라선> <트리사 이틀> 등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불교의 사회참여 성향을 적극 옹호하 고 세계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 동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세계석학들의 논문과 유수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 이들 중에는 제3세 계국가에서 폭력·기아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불교평화연맹'과 1930년 대 일본에서 불교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창가학회 웹사이트도 '가치있는 사회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미 국 현지인이 설립한 '가상선원' 사이트 로 미주지역의 법회·법어·신도교육 등의 정보를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인터 넷에는 이와같은 가상선원·가상사찰 사이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로터스 갤러리'와 같이 십우도·불 상·탱화·만다라 등과 같은 장엄구와 불교예술작품들의 화상들을 제공해 주 는 사이트도 다수 개설됐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은 '인터넷은 차세대 통신·미 디어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인터 넷 전문가(http://www.nw.com)들은 진단하고 있어 앞으로 가상공간에서의 불교의 활동 역시 더욱 두드러질 전망 이다. 오종욱 기자

# 불기 2541년(丁丑年) 새해, 새날 - 만나는 인연마다 발걸음닿는 곳마다 불국토 이루소서

<p>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p> <h2>불국사</h2> <p>조 실 월 산 주 지 설 조 부 주 지 성 천 기획실장 중 근 교 무 정 문 사 회 혜 원 포 교 성 형 호 법 지 영 신도회장 권 략</p>	<p>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p> <h2>법보종찰 해인사</h2> <p>방 장 법 전(法傳) 주 지 보 광(普光)</p> <p>대중일동</p> <p>▶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10 전화 : 0599-31-1001, 3</p>	<p>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p> <h2>관음사</h2> <p>조 실 석 주 주 지 중 원 신도회장 강창식 청년회장 부현철</p> <p>▶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387 전화 : 064-55-6830 중무소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47-12 (관음사 포교당 본현사) 전화 : 064-22-2829 팩스 : 064-58-3367</p>	<p>서부은평 사원연합회</p> <p>회 장 서 성 운(삼천사) 부 회 장 한 자 용(수국사) 부 회 장 김 혜 진(시연사) 부 회 장 이 법 성(관음사) 사무총장 서 혜 인(선홍사)</p> <p>사회복지법인 인덕원</p> <p>이사장 서 성 운 부 설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 어린이집 중암 어린이집 수색 어린이집 개나리 어린이집</p> <p>▶ 서울시 진관로15길 11 인평사서함 77호 전화 : 359-7766, 353-3004</p>	<p>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p> <h2>삼각산 도선사</h2> <p>주 지 차 동 광</p> <p>대중일동</p> <p>▶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중무소 993-3161~3 주지실 993-5002 팩스 : 993-3164</p>
--	--	--	--	--